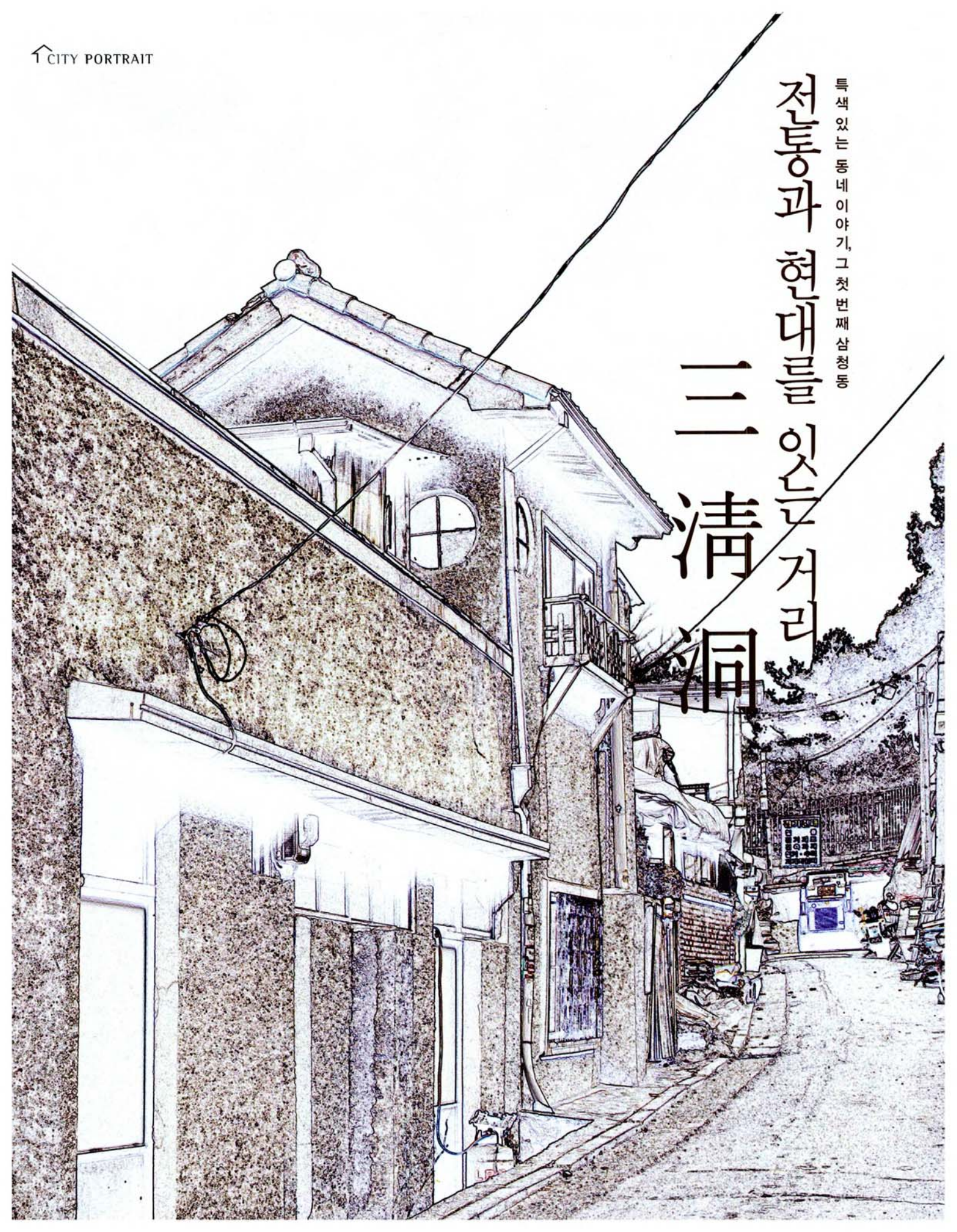


특색 있는 동네 이야기, 그 첫 번째 삼청동

전통과 현대를 잇는 거리

# 三 清 洞





동네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갤러리로 형성된 이곳은 골목골목이 작품이고 길거리 풍경이 그대로 그림이 된다. 산책을 하는 동안 마주하는 공기에서조차 은은한 예술가들의 향기가 물어나는 곳, 삼청동. 정겨움을 만끽할 수 있는 동네 삼청동에 다녀왔다.

에디터 이은숙 사진 이종규

'길은 넓어야 좋다'는 생각은 일단 삼청동에서는 버려두자. 삼청동 길은 좁을수록 제 맛이 난다. 양옆 좁은 길을 걸으며 운치 있는 풍광을 두루 만끽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 한 집 건너마다 자리 잡은 갤러리와 멋진 카페와 와인 바. 그러나 그 뒷문 어디쯤으로 골목을 조금만 더 들어가면 서울의 60년대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오래된 한옥의 기와 지붕과 낡은 담장을 만날 수 있다. 골목골목마다 추억이 스며 있어 정겨운 마음으로 풍요로워지는 곳이 바로 이곳, 삼청동이다.

**삼청동에는 삼청동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복궁에서 삼청공원을 잇는 삼청동 거리. 그렇다면 과연 어디서부터가 삼청동 거리의 시작일까? 경복궁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진선 북 카페와 국제 갤러리 사이 골목으로 폭이 좁은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이 바로 그 유명한 삼청동 거리의 시작이다. 하지만 사실 그곳은 예전 소격서가 위치해 있던 '소격동' 이므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보이는 삼청동 파출소에서부터 삼청동 거리가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 삼청동 길 건너편은 예전에 이 작은 동네에서 '판서' 가 무려 8명이나 나왔다고 해서 '팔판동' 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삼청동에서 동쪽이 가회동,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한옥마을이 정겹게 모여 있는데 그곳이 바로 안국동이다. 소격동 아래 경복궁 쪽이 궁의

일을 보던 나인들이 살던 곳이라는 '사간동' 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청동은 행정구역상 삼청동과 법정동인 삼청동· 팔판동· 안국동· 소격동· 화동· 사간동· 송현동 7개 동을 아우르는 곳이다. 일곱 개 동네마다 특징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일까. 이곳에서는 삼청동만의 독특한 동네 분위기가 풍긴다.

삼청동에서 보내는 하루는 너무 짧다. 7개 동을 모두 돌아보려면 하루가 모자란다. 일단 삼청동 거리 양옆에 위치하고 있는 독특한 빈티지 숍이나 액세서리 숍 등 독특하고 이색적인 상점을 찾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반나절이 다 지나간다. 그렇다고 북 카페나 갤러리, 모던하고 트렌디한 레스토랑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법. 분위기 있고 모던한 갤러리 겸 레스토랑에서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날이 저문다.

좁지만 운치가 느껴지는 거리를 걷는 연인과 골목 사이를 누비며 진귀한 것을 찾더라도 하듯 삼삼오오 재잘대는 대학생의 발걸음이 분주한 것도 다 이 때문. 게다가 이 동네가 주는 느낌과 여유로움을 카메라에 담아 가려면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리 넓지 않은 아기자기한 규모의 상점과 박물관, 방앗간 등 골목사 이사이에 숨어 있듯 자리하고 있는 상점까지 찾아내려면 사실 하루도 부족하지만 말이다.

**예술가의 향기가 묻어나는 거리** 청담동의 트렌디함과 홍대 앞에서만 느껴지는 개성, 게다가 인사동의 전통까지 한데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내는 곳이 바로 삼청동이다. 언제부터인가 이 동네에서는 공기에서조차 은은한 예술가들의 향기가 나기 시작했다.

인사동 지역이 식당 위주로 바뀌면서 임대료가 급등함에 따라 인사동 주변의 각종 갤러리와 화랑, 골동품 가게들이 하나 둘 삼청동으로 보금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다. 한 집 건너 하나씩 갤러리가 있는 곳, 삼청동이 문화의 거리로 조성되는 것은 어쩌면 필연이었던지도 모른다. 인사동과 인접하면서 오래된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삼청동 말고 또 어디 있겠는가.

현재 삼청동 일대에 자리 잡은 화랑만 해도 갤러리 현대, 국제 갤러리, 학교재 등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화랑들을 비롯해 갤러리 피프틴, 김현주 갤러리 등 모두 20여 곳. 인사동이 상업화된 반면 삼청동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갤러리들이 하나 둘 옮겨오면서 덩달아 삼청동을 자주 찾고 있다”는 게 삼청동 갤러리를 찾는 이들의 설명. 현재 삼청동 동사무소 옆에는 갤러리 시간의 신축 공사가 한창이다. 오는 10월 문을 여는 갤러리 시간까지 합세 한다면 삼청동을 하나의 대형 갤러리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길가 땅값은 천차만별, 주인 마음대로?** 청와대에서 차로 5분 거리인 삼청동 총리 공관 맞은편에 위치한 갤러리 보인행. 이곳은 도예가 양구의 향아리, 그릇, 단지 등의 작품을 팔기도 하지만 기획전과 고객 초대전 등 전시도 함께하는 곳이다. 보인행 대표는 처음 이곳에 가게를 오픈하겠다는 생각으로 1년 이상 삼청동 일대를 답사한 후 지금 보인행이 위치한 12평 남짓한 공간을 평당 600만 원을 주고 매입했다고 한다. 벌써 3년 전 일이다.

현재 삼청동 거리 도로변의 평당 지가는 1500만~2000만 원 선. 하지만 인근 부동산업자들의 말에 따르면 평당 3000만 원 하는 곳도 있어 그야말로 이곳 평당 지가는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3~4년 전 평당 3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골목길 한옥집 가격도 평당 12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화랑과 음식점이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스러운 상권을 형성하게 된 이곳이 독특한 문화 상권으로 각광받게 된 계기는 아마도 청와대 인근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고도 제한 등의 규제에 갇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했기 때문이 아닐까? 당시 삼청동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위해 외관은 낡은 느낌을 그대로 둔 채 내부 인테리어만 리모델링했다는 보인행 대표는 “이곳에 새로 문을 열게 되는 이들도 삼청동이라는 동네 고유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한다. 어디를 가도 아련한 추억과 이야기가 있을 법한 삼청동 상점들이 더 오랜 시간 이곳에 자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삼청동에서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 갤러리가 아니라도 삼청동 길은 볼거리가 무궁무진하다. 고즈넉한 정취를 느끼며 산책하는 데 그만인 이 거리에는 한옥을 개조해 만든 아기자기한 레스토랑과 카페, 모던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와인 바와 다양한 소품 숍들이 즐비하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오랜 전통을 이어가는 ‘삼청동 수제비’나 ‘산채비빔밥’ 같은 음식점 몇 곳을 제외하고는 볼거리가 없던 이 거리에 최근 하나 둘씩 모던한 감각의 레스토랑과 와인 바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길가 뒤편에 위치한 주택까지 레스토랑과 화랑으로 꾸며지고 있다.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한 상점이 지금은 100여 개. 새로 생기는 레스토랑과 상점들은 이 동네의 빠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다. “커다란 변화 없



이 이곳을 지켜오던 10여 개의 가게들이 들어섰던 삼청동이었지만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가게들이 하나 둘 생겨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게 삼청동에서 10년 넘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인의 이야기다.

북촌 한옥마을을 전통 관광명소로 개발하려는 서울시의 정책도 삼청동 변화의 물결에 한몫하고 있다. 북촌 마을은 2001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북촌 가꾸기 사업으로 924동의 한옥 가운데 현재까지 200채 이상의 한옥이 개·보수를 완료한 상태다. 서울시는 한옥 23채와 한옥이 아닌 주택 6채 등 총 29채를 104억원 들여 매입했는데 이들 한옥을 새롭게 고쳐 북촌문화센터, 게스트 하우스, 전통 공방, 박물관, 주차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북촌의 변화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방문객들도 이곳을 찾고 있다. 삼청동 길을 걷다 보면 한옥마을을 사진에 담고 있는 일본 관광객과 한국 특유의 문화와 정취를 찾는 외국인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변화한다는 것, 그리고 새롭다는 것이 이곳에서는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삼청동의 고즈넉한 매력에 매료돼 오래전부터 이곳을 찾았던 이들은 이곳의 음식값이 오르지 않는 것과 더 이상 새로운 가게가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시간의 흐름과 트렌드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아직까지 없다. 때문에 삼청동만이 가지고 있는 고풍스러운 느낌과 그 고유한 멋과 특성이 무분별한 개발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동네 고유의 운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삼청동을 서울 도심의 명소로 남기기 위해서 말이다. ☺